

친환경 수소산업 거점도시 조성

전주시, 경제산업 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일자리 창출’ 이 핵심
수소산업 거점 기반 마련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제 발굴
올 하반기 공모사업 대응

전주시가 친환경 수소산업 중심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나선다. 또한, 탄소·드론·ICT·금융산업 등 지역특화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친화형 성장환경 조성 및 소상인 경영안정화 지원, 청년 창업지원 기반 마련 등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2일 열린 신성장산업본부 신년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경제산업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핵심 키워드로 한 4대 추진전략은 △지역특화 신성장산업 육성을 목표로 미래산업 선도 △기업 친화형 성장환경 조성으로 기업활력 제고 △소상인 안정화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청년 지원정책 강화이다.

지역특화 신성장산업 육성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탄소·드론·ICT·금융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수소산업 거점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특화과제와 국책과제를 발굴함으로써 하반기에 예정된 정부의 수소기반 시범도시 등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또 탄소기술 시장에서 지역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연구수소기업 확대(연간 10개소)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 △고성능 고품위 탄소섬유 제조용 인프라 조성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탄소기술 개발과 이전 등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복합구조물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드론 산업 지원 허브 구축 연구 △드론산업 국제 박람회 개최 등도 중점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역사·문화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연계한 융복합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22일 전북도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추진연대 관계자들이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과 아동 프로그램 비 확충,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리공단 기금운용부부가 위치한 이점을 살려 금융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우수 중소기업 양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친화형 성장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유치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영세기업 및 초기 창업자의 입주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2개소)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인프라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선정 및 지원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윈스톱 기업통합 지원체계 구축 △여성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 △우수항로기업 발굴 육성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소상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3개 사업) △화재예방 시설 설치사업(3개소)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조성(2개소)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사업 등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추진한다.

끝으로, 청년 창업 지원공간을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우수한 인큐베이팅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면접정장 대여지원 사업, 근로체험과 진로교육, 여행을 결합한 ‘청년 캠퍼 어 정책’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이밖에, 시는 청년정책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 운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소통공간 ‘비빌’도 확대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형조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2019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주가 사람중심 일자리 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미세먼지 지수 도내 모든지역 실시간 제공

도, 대기오염측정소 확대
14개 시군 24곳 확대 설치

전북도는 도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좀더 촘촘한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소를 확대한다.

2019년도 전북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 17개소, 대기오염측정소 5개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60억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기오염측정소는 기존에 산단 인구 밀집지역을 위주로 설치 운영하였으나 미세먼지의 사회적 이슈에 따른 발 빠른 노력으로 지난해까지 14개 시·군 24개소로 확대 설치를 완료하여 실시간으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매 시간단위로 50분 동안 미세먼지 포집하고 10분 동안 분석하여 시스템 전송 앱과 전광판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측정된 농도는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50 μ g/m 3 초과) 등 도민들의 미세먼지 안전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민들은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

공공·행정기관은 차량2부제 실시, 도로청소차량 운행확대 등 단계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수단을 시행한다.

또한, 올해에는 화학적 성분 분석이 가능한 전북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가 설치된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황사 및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파악하고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원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기존 6개권역(서울, 백령도, 대전, 광주, 울산, 제주)에 설치 운영되었으며, 2018년부터 경기 안산, 충남 서천 설치에 이어 올해에는 전북에 설치할 계획이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고 중금속 성분을 분석/측정 자료를 기반으로 외부영향 분석/고농도 오염현상의 원인 파악, 유해대기오염물질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으로 대기오염측정소를 확충하여 지역별 세밀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확보, 지역주민에게 신속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시 연 세액 10% 공제

전북도는 이달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으나,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1월에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농수산물 수출액 3억달러대

전북도, 작년 12월 기준 3억1082만 달러 전년비 41.5% ↑

지난해 12월(누계) 전북도 농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41.5% 증가한 3억1082만 달러로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전북도 농식품 수출 목표(2.4억 달러)를 29.5% 초과 달성한 실적으로 농식품 수출 이래 처음으로 수출 3억 달러 시대를 열게 되었다.

수출 증가율 41.5%는 전국 농수산물 수출 증가율(1.7% 증)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국 9개 도부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부류별로는 축산물(154.0% 증), 가공농식품(125.3% 증), 신선농산물(7.0% 증)이 증가하고, 수산물(0.9% 감)의 감소폭은 줄었으며 임산물(36.8% 감)의 수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축산물은 닭고기(1427만6000 달러, 240.9% 증)가 축산물 수출 비중 1위 품목이었으며, 가공농식품은 라면 수출이 증가하면서 면류(4654만9000 달러, 330.9% 증)가 상승세를 주도하여 전년 동기대비 125.3% 증가했다.

수산물은 마른김(6110만5000 달러, 3.0% 감)이 주 수출 시장인 태국(4732만5000 달러, 13.2% 증)과 러시아(227만3000 달러, 19.7% 증) 수출이 늘었음

에도 일본(817만2000 달러, 42.5% 감)과 중국(27만 달러, 48.0% 감)으로의 수출이 감소해 총 3.0%가 감소했다.

조미김(4526만7000 달러, 0.5% 증)은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2637만9000 달러, 7.3% 감)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면류의 수출증가로 지난해말부터 전북도 농식품 수출국 1위를 회복한 중국(6719만5000 달러, 60.8% 증)에 이어 마른김 수출이 꾸준한 태국(5339만9000 달러, 21.7% 증)이 2위를 차지했으며, 감소세 둔화가 지속된 일본(4084만9000 달러, 1.2% 감)은 일본은 여전히 수출액 기준 3위를 차지했다.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조호일 과장은 “2018년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이 드디어 3억 달러 시대를 맞았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수출에 매진해 준 도내 농수산물 생산 및 수출업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19년도 농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범죄신고 112 · 화재신고 119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